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진 무등극장

눈물·웃음·감동 주던 명소... “추억은 영원히”

1920년대 중반 목조형태 극장 ‘제국관’으로 시작

건물 리모델링, 예술학원·연극전용관 등으로 활용

100년 가까운 세월을 광주 시민과 함께 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자리를 비키는 무등극장은 광주 영화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광주에서 본격적으로 영화가 상영된 것은 1900년대로, 효시는 동구 황금동 파레스호텔 터에서 관객이 다다미를 깔고 앉아 연극과 영화를 봤던 현대식 극장 ‘광주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다음으로 들어선 영화관은 1920년대 중반 이후 현 무등극장 터에 지어진 목조형태의 극장 ‘제국관’이었다. 이듬해에 알 수 있듯이 일본인이 세운 것으로 당시 경성의 명동 명차와 건물을 본떠서 만들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일본인 경영자가 물러나고 이 극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기설비사가 경영을 맡았고 최흥열씨는 전무로 참여했다. 인수 당시에는 ‘공화극장’이라했다가 이듬해 사회주의적 뉘앙스가 풍긴다고 해 개명하러가 나지 않아 ‘동방극장’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후 경영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했다.

동방극장에서는 나운규의 ‘아리랑’ 등 영화 상영 뿐 아니라 전국학생연극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열렸다.

방화(국산영화)·양화(외국영화) 전용 상영관 구조가 사라졌던 1970년 11월 풀뉴먼 주연의 ‘내일을 향해 쏴라’ 개봉을 시작으로 동방극장에서 무등극장으로 개명했다. 무등극장에서는 전남일보(광주일보 전신)가 주최하는 무등대상·영화가요제가 열려 영화배우 신영균·윤정희·사미자·오기택 등 정상급 연예인들이 총출동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현재 건물은 1974년 화재 이후에 새로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곳을 1979년 오권수(72)씨가 인수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1990년대 멀티플렉스의 등장으로 대형극장 존립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 때 기존의 구조에서 멀티플렉스 형태로 교체하고 이름도 무등극장에서 ‘무등시네마’로 바뀌어 운영해왔다. 또 밀리오레 시네마를 개관하는 등 고군분투했지만 영업 부진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오권수 회장은 “1년에 5~6억씩 적자나 영화관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지만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해 예술학원을 입주시키고 4·5층은 연극전용관으로 꾸미는 등 문화·예술 공간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의 향토 극장 무등극장이 24일 문을 닫았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1982년 7월 27일, 영화 ‘개인교수’를 보기 위해 무등극장에 몰려든 시민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51관

유일하게 남은 광주극장, 예술영화로 마니아층 확보

무등극장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면서 광주 지역 향토극장은 단관극장인 광주극장 딱 하나가 남았다. 하지만 광주극장이 예술극장 전용관인 점을 감안하면 일반 개봉 영화를 볼 수 있는 향토극장은 하나도 남지 않게 된 셈이다.

국내 첫 멀티플렉스는 1999년에 등장한 서울 강남 CGV. 광주에서는 1999년 7개 스크린을 보유한 엔터시네마(2009년 폐관)가 지역 최초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었다. 이어 지역극장인 무등극장과 제일극장이 멀티관으로 변화를 시도했고, 콜롬버

스시네마 역시 의욕적으로 영화관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폐업하거나, 영업권을 대기업들에게 넘기면서 모두 사라졌다.

현재 지역 개봉관은 CGV를 비롯해,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3관점을 벌이고 있다. 가장 많은 매출액과 관람객 수를 자랑하는 곳은 CGV 광주 터미널(9관, 1889석)로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아이맥스관과 4D관도 보유하고 있다. CGV 첨단은 7개관 1552석 수준이다.

지난해 씨너스와 합병한 메가박스는 광주에 모두 5개관을 확보하게 됐다. 총장르

에 위치한 메가박스 광주점(9개관·1561석)이 탄탄히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씨너스 전대관(7개관·1185석)이 메가박스로 간판을 바꿔 달았으며 콜롬버스 상무점(9개관·1980석)과 하남점(10개관) 역시 메가박스 옷을 입었다.

또 지난 2008년 폐업했던 롯데 시네마 첨단점은 메가박스 첨단점으로 재개관한다. 당초 설 연휴를 앞둔 20일 개관예정이었으나 잠시 개관이 미뤄진 상태다.

지역극장가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은 롯데시네마다. 롯데백화점에 위치한 광주점(6개관, 1424석) 한곳만 운영했던 롯데시네마는 지난해 8월 1년 넘게 비어있던 옛 메가박스를 상무점(10관 2162석)으로 재오픈하며 시동을 걸었다.

또 제일시네마 자리에 들어서는 롯데시네마는 2월중으로 문을 열 예정이다. 롯데

시네마가 직영하는 수완점(롯데마트 수완점) 역시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광주 지역의 유일한 향토극장으로는 1935년 문을 연 광주극장만 남게 됐다. 지난 2002년 예술영화전용관으로 변모한 광주극장은 수준높은 영화들을 상영하고, 다양한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1963년 문을 열었던 제일극장은 2000년 6개관 규모의 멀티플렉스를 개관하고 제일시네마라는 이름을 달았으나 현재는 롯데시네마 간판으로 2월께 재개관한다.

그밖에 지난 1961년 개관해 2004년 문을 닫은 현대극장은 광주시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계 사업 등과 연계, 광주극장과 함께 예술극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나 뚜렷한 대책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넌뛰기하는 네이버 로고는 이이남 작품

김홍도 민속놀이, 미디어아트로 재해석 4일간 선봬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씨의 작품이 설 연휴(21~24일) 동안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

네이버가 지난해 12월부터 대설, 크리스마스, 새해 등 특별한 날에 맞춰 선보이고 있는 ‘로고 아트’ 네 번째 작가로 이씨가 선정됐다. 로고 아트는 네이버 로고를 예술적으로 장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가 이번엔 선보인 로고 아트는 김홍도의 풍속화 속에 등장하는 설날 민속놀이 모습을 미디어아트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널뛰기, 연날리기, 세배, 윷놀이 등 김홍도의 원화를 미디어아트 기법으로 움직이게 해 나홀로 동안 선보였다.

한복을 입은 아나들이 널을 뛰는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한 이씨의 이번 움직이는 작품은 네티즌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 네이버 측은 이씨의 작품 ‘모네 소치의 대화’ 등 2점



을 구입했고, 이씨의 작품 세계와 인터뷰 등을 함께 게재했다.

한편 네이버 로고 아트는 그동안 사진작가 배병우, 서양화가 황주리, 한국화가 이중상씨의 회화 위주로 진행됐다.

이씨는 조선대 미술대학과 대학원, 연세대 영상대학원 출신으로 ‘아트프린트 2008’ 한국 작가로 선정됐고, 제3회 대한민국미술인상 청년작가상을 받았다. 또 최근 세계적인 컬렉터 올리시(스위스)에게 작품을 판매하는 등 국제 화단에서 주목받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강아지똥’ 유아책 최고 스테디셀러

지난 8년간 10위권... 국내 창작그림책 최초 100만부 돌파

권정생(1937~2007년)의 그림책 ‘강아지똥’이 지난 8년간 유아책 베스트셀러 순위 10위권 안에 꾸준히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서점 예스24가 집계한 유아책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강아지똥’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유일하게 빠짐없이 10위권 안에 들었다. ‘강아지똥’은 권정생이 1969년 처음 발표한 단편 동화에 화가 정승각의 토속적인 그림을 더해 1996년 펴낸 것이다. 지난해 3월 국내 창작그림책으로는 처음으로 100만 부를 돌파했다.

또 현재까지 모두 57만 부가 팔려나간 ‘구름빵’은 2006년 1위를 기록한 이후 2007년 2위, 2008년 4위, 2009년 3위에 이어 2010년과 2011년은 모두 선두를 지켰다. 역시 1996년에 출간된 다다 히로시

의 그림책 ‘사과가 콩!’도 2011년을 제외한 7년 동안 10위권에 포함됐다. 범위를 최근 5년으로 좁혀보면 각각 2004~2006년 출간된 ‘사랑해 사랑해’(버나뎃 로제티 슈스타글)와 백희나의 ‘구름빵’, 최희희의 ‘팬츠’의 3관점이 두드러진다.

작가별로 가장 많은 스테디셀러를 보유한 작가는 앤서니 브라운이었다. 앤서니 브라운은 ‘우리 아빠가 최고야’(4위), ‘돼지책’(9위), ‘우리 엄마’(11위)를 비롯해 일곱 작품을 50위권에 진입시키는 등 지난 8년간 모두 열한 작품이 5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

■연도별 유아책 베스트셀러

연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2004년	강아지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05년	강아지똥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06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07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08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09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10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2011년	구름빵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팬츠	우리 아빠가 최고야	무지개 물고기	감각 탐색 그림책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이리대장 준	열두 띠 동물, 개공놀이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 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 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흠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sojang.com

아이엘리시아
 Be natural Be delicious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즉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마니 | ○ 출장뷔페, 도시락

유스퀘어 U-square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유스퀘어 사우나
 24시간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피부샵(스파·코마사지) 인터넷 · 안마기 · 이온원 · 세신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